

백운암 철불좌상의 과학적 분석

정광용, 정희원, 박지혜, 신중미

한국전통문화학교 보존과학과

Scientific Analysis of Seated Iron Buddha from Baegunam(Temple)

Kwang-Yong Chung, Hee-Woon Jeong, Ji-hye Park and Jung-mi Shin

Department of Conservation Science,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430

Hapjung-ri Kyuam myeon, Buyeogun 323-812, Korea.

충주시 엄정면 괴동리 소재 중원 백운암 철불좌상은 앉은 높이 90cm, 어깨폭 40cm, 가슴 폭이 70cm의 고려시대 불상으로 결과부좌를 하고 향마촉지인을 짓고 있는 석가여래불이며, 이웃 괴동리의 億政寺址에서 이전된 것으로도 구전되고 있다.

백운암은 고종 23년(1886)에 파평 윤씨가 白衣鐵佛이 나타나서 지금의 절터에 불상을 안치하라는 꿈을 꾸고 난 후 세운 절이다. 법당에 철불좌상은 머리에는 작은 소라 모양의 머리칼을 붙여 놓았으며, 얼굴은 가름하면서 수려하다. 상체는 비교적 늘씬한 편인데 어깨는 아담하고 가슴은 발달되었다. 왼쪽 어깨에만 걸쳐 입은 옷에는 옷주름선이 단순하게 나타나 있으며, 양 발을 무릎위로 올리고 발바닥이 위로 향한 자세로 앉아있다.

불상은 주철을 주조하여 만들고 근래에 갈라진 부분에 석고를 바르고 동분으로 개금 불사하여 철불상 본래의 모습은 볼 수 없으나 비교적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얼굴과 손의 형태 등을 정확히 볼 수 없어 존명과 제작연대 등을 확실히 알 수 없으나, 보물 513호 영천 선원동 철불좌상과 유사한 점도 보이고, 충주 단호사나 대원사의 철불좌상과 함께 이 지방의 우수한 철불좌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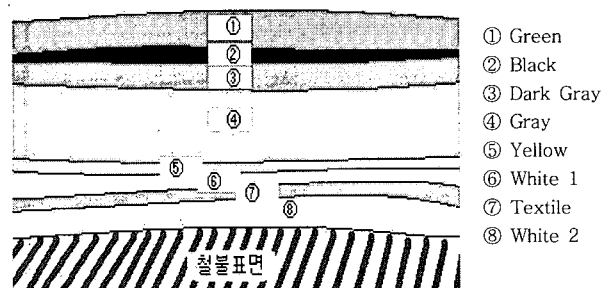
2005년도 한국종합방제주식회사는 중원 백운암 철불좌상의 동분개금된 부분을 제거하고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철불좌상을 수리 복원하였다.

본 연구는 자문회의시 분석시편을 수습하여 실체현미경조사와 비파괴X선형광원소분석기(XGT, X-ray Guide Tube, XGT-5000 series, HORIBA)를 이용하여 과학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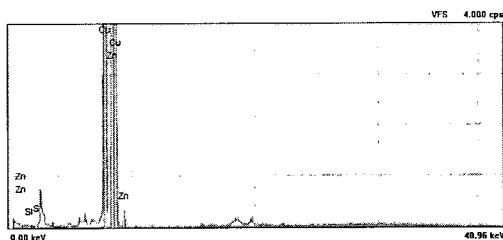
분석결과 백운암 철불좌상은 시차를 두고 2회에 걸쳐 개금되었으며, 1회째는 철불좌상 표면에 연백을 바르고 식물성 천으로 배접한 다음 그 위에 다시 연백을 바르고 황동(Cu+Zn) 분말을 칠하여 개금하였다. 2회째는 황동 개금층 위에 연백대신 호분을 바르고 황동을 덧칠하여 개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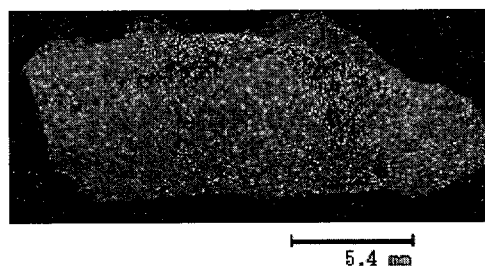
[그림 1] 실선(시료채취 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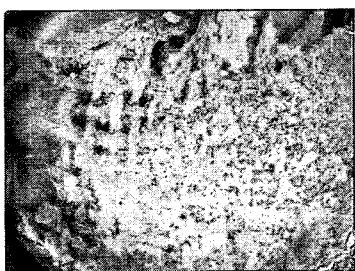
[그림 2] 철불좌상에 개금된 시편 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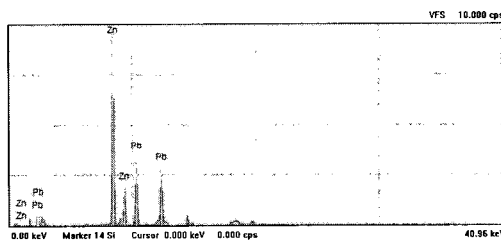
[그림 3] ① Green, 황동(Cu+Zn)



[그림 4] Red-Cu, Green-Fe, Blue-Zn



[사진 5] ⑦ Textile



[그림 6] ⑧ White 2, 연백